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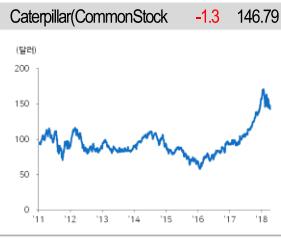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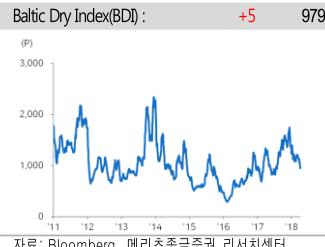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714.8	18.5	126,000	0.4	-11.6	0.7	31.3	87.8	42.1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6,864.8	21.5	421,500	3.3	-5.3	-6.9	10.6	5.7	4.7	0.8	0.7	14.1	14.7
현대알렉트릭	787.9	6.8	77,200	3.8	-9.9	-35.9	-32.3	7.3	6.4	0.7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688.8	8.4	171,000	11.8	-8.1	-16.2	1.2	10.9	8.0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3,470.4	15.8	7,760	0.1	-4.9	-2.3	20.0	48.9	24.3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857.0	4.1	26,650	-2.9	-1.5	67.6	91.7	9.8	11.8	0.9	0.8	9.0	6.8
현대미포조선	1,846.0	11.0	92,300	0.3	-13.7	-7.0	17.3	19.9	14.4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32.5	6.6	3,135	-0.3	-6.8	-11.9	-5.3	63.1	15.7	0.5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013.6	28.3	76,100	-1.0	-3.2	39.6	39.9	13.4	13.1	1.8	1.6	14.6	13.3
두산밥캣	3,112.7	27.0	31,050	-3.6	-2.2	-13.1	-13.3	11.4	10.7	0.9	0.8	7.4	7.6
현대로템	1,449.3	25.8	17,050	0.3	6.2	-8.8	-9.1	22.0	15.0	1.0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25.4	48.1	23,900	0.2	-1.8	-6.1	6.2	10.8	9.9	0.9	0.9	8.8	9.0
성광밴드	321.8	16.5	11,250	-1.7	-7.0	-1.3	12.7	994.5	403	0.7	0.7	0.1	1.8
태광	326.0	14.7	12,300	-0.8	-16.6	-5.7	2.1	73.4	35.9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591.6	10.4	14,950	0.3	-0.7	-12.1	-2.6	12.8	9.5	0.5	0.5	4.1	5.1
두산인프라코어	1,794.2	12.7	8,620	1.9	-3.8	-19.1	-0.8	7.6	6.7	0.9	0.8	12.7	13.1
두산엔진	388.5	3.4	5,590	0.4	22.5	33.1	51.7	-77.0	56.2	0.7	0.7	-0.9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669.1	16.7	47,900	0.1	-0.7	0.1	0.9	34.3	23.9	3.6	3.3	10.6	13.7
한화테크윈	1,414.9	12.7	26,900	0.0	-4.9	-22.5	-24.3	21.9	14.2	0.6	0.6	2.8	4.1
LIG넥스원	993.3	11.0	45,150	-0.3	0.1	-16.2	-24.5	18.4	12.8	1.5	1.4	8.6	11.4
태웅	354.1	3.9	17,700	1.7	-12.8	-18.4	-8.5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83.5	5.6	6,800	-1.4	-22.6	7.1	34.7	-50.0	71.6	21	21	-4.3	3.1
한국카본	251.5	15.3	5,720	2.1	-22.5	-7.4	6.7	47.5	256	0.8	0.8	1.7	3.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법정관리 피한 STX조선, 생존 과제는... "中 따돌릴 친환경 기술 확보해야"

정부와 채권단은 STX조선해양이 제출한 노사합의 자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STX조선은 두 번째 법정관리를 피한 상황임. 산업은행은 노사가 제출한 자구안이 고정비 40% 감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STX조선은 향후 MR 탱커와 LNG벙커링선, 소형 가스선 수주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봄별 든 한국 조선업 ... 10년 불황 터널 끝이 보인다

Clarksons은 이달 초 글로벌 조선업황 보고서에서 조선업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줄고 있다며 호황을 전망함. 회복의 근거로 1) 환경규제 강화, 2) 해양 플랜트 발주, 3) 글로벌 조선업체 구조조정을 제시함.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1분기 글로벌 수주 실적 1위(점유율 42.2%)를 차지함. (중앙일보)

Ocean Alliance starts 'Day Two' with 331 ships

Ocean Alliance는 310만톤, 331척의 컨테이너선을 바탕으로 'Day Two Product' 출범함. 컨테이너선사 CMA CGM, Cosco CS, Evergreen, OOCL이 Ocean Alliance에 소속되었고, 작년 말 360만톤, 340척 규모의 Day Two Product를 계획함. Alliance는 20개의 항로를 구성할 예정임. (TradeWinds)

현대상선 7년 만에 대규모 선박 발주...들뜬 조선사들

현대상선은 2만TEU급 이상 12척, 1.4만TEU급 8척 등 20척에 대한 제안요청서 (RFP)를 발송했고, 6월 전 발주를 목표함. 업계에서는 납기인 2020년까지 총 80척 조선소 2~3곳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함. 또 한 곳에서 1.4만TEU 8척을, 두 곳이 2만TEU급 6척씩 건조하는 방안도 거론됨. (조선비즈)

노르웨이 Fredly, 대우조선 VLCC 발주 확인

지난달 노르웨이 Ame Fredly의 투자회사 Apollo Asset은 VLCC 시장진출을 부인했으나, 3월 초 대우조선해양에 4+3척의 VLCC를 발주했다고 알려짐. 선가는 척당 8,520만달러(스크러버 270만달러 포함), 인도는 19년 11월, 12월로 예정. 옵션의 확정시한은 5월 27일로 선가는 8,550만달러, 20년 2분기 인도예정임.

Korean appetite for LNG weaker than hoped

Wood Mackenzie는 한국이 최근 발표한 13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 계획에 포함된 LNG 수요 예측치가 낮은 편이라고 언급함. 31년까지 수요는 4,050만톤으로, 17년 대비 300만톤 증가한 수치이며, 14년 동안 8% 수준의 성장임. 반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함.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4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4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4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